

Environmental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Social

Governance

2024 ESG Trend 10

제공일시 2024 01 2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10.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자연자본 흐름

“플라스틱, 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협약 2024년 연이어 개최... 생물다양성 투자 3배 늘어나며 중요성 점점 커지고 있어”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에서 향후 10년간 예측되는 10대 리스크 중 자연자본 및 생물다양성 손실은 세 번째 중대 리스크로 꼽혔다. 글로벌 보험 싱크탱크 제네바 협회(Geneva Association)에 따르면, 글로벌 GDP의 50% 이상인 58조달러(약 7경8068조원)가 자연자본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순환경제,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 등은 더 시급한 문제로 여겨졌던 탄소 감축 및 이상기후 대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논의의 메인 스트림에서 비껴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후(Climate)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쌍둥이처럼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은 공시 프레임워크인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가 발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Source: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 2019-2020. Note: Survey respondents were asked to assess the likelihood of the individual global risk on a scale of 1 to 5, 1 representing a risk that is very unlikely to happen and 5 a risk that is very likely to occur. They also assessed the impact of each global risk on a scale of 1 to 5, 1 representing a minimal impact and 5 catastrophic impact. To ensure legibility, the names of the global risks are abbreviated; see Appendix A.1 the full name and description.

2024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5차 회의 예정, EU와 미 캘리포니아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도입, EU 배터리 규제 이후 배터리 순환경제 가속화



출처: 언스플래시

올해 가장 주목받는 국제 협약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은 오는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은 지난해 9월 31페이지에 달하는 ‘제로 초안(Zero Draft)’을 발간했고, 이 초안에는 플라스틱 생산량 감소,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글로벌 목표 설정, 미세 플라스틱 단계적 제거, 생산자 책임확대, 재사용 및 수리 시스템 활성화, 독성 첨가물(화학물질)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엄격한 통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생산자 책임 확대는 플라스틱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주요 사안이다. 또 유엔은 이러한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국제법적인 구속력 있는 기구를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플라스틱의 생산, 설계, 폐기 등 전체 수명주기를 다루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할 전망이다.

한편, 유럽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2024년 포장 및 포장폐기물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다. 특히 2024년말까지 발효될 예정인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는 EU 전역에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11월 PPWR 규정을 본회의 표결로 확정했다. EU 이사회, EU 집행위와 제3자 협상이 이뤄지면 2024년 EU 회원국 전역에 곧바로 적용된다. 즉, 역내 플라스틱 포장재 총량을 2030년 10%, 2035년 15%, 2040년 20%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생산자 책임이 확대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레곤 주에서 포장에 대한 생산자책임제도(EPR)가 2025년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이 규정의 세부 규칙 개발하는 중이다.

또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EU의 ‘지속가능한 EU 배터리법’의 경우, 배터리에 수은,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EU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에 맞춰 2026년부터 탄소발자국 등급에 따라 배터리가 분류된다. 2027년부터 배터리 탄소발자국의 상한선을 준수해야 한다. 2025년까지 폐휴대용 배터리의 65%, 2030년까지 70%를 수거해야 한다.

구분	내용
포장 공간	과대 포장 방지를 위해 전체 부피의 40%이상 빈 공간이 있는 포장 방식이 금지됨
판매 금지	15 마이크론(microns, 0.0001cm) 미만의 가볍고 얇은 비닐봉지 판매 금지 (위생상의 이유로 필요하거나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 포장재로 제공되는 경우 제외)
특정 포장 형식에 대한 제한 사항	사용자가 두 개 이상의 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캔, 통, 냄비, 패킷 등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포장 등 여러 유형의 일회용 포장을 금지함
플라스틱 포장에서 재활용 원료 사용	1) 새 플라스틱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 사용을 의무화 2) 포장재에 따른 재활용 최소 비율 규정(하단 표 참고)
재사용 및 재충진	재사용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재사용 시스템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정 품목의 포장에서 일정 비중을 재사용 및 리필이 가능한 포장으로 대체 필요
환경 라벨링	포장 재사용 관련 가능성에 대한 라벨 및 재사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QR 코드 또는 기타 디지털 매체를 통해 1회용 포장인 아니라는 점과 수거 장소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식품 포장의 화학물질	식품 접촉 포장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과불화화합물(PFAS)과 비스페놀 A 사용이 금지됨

출처 :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채택 - KATI 농식품수출정보

https://m.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905&menu_dept2=35&menu_dept3=71

*EU PPWR 주요 내용. 최종 협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TNFD 공시 지지선언 기업과 금융기관 320개로 확대… SBTN과 CDP 또한 자연자본 공시 독려

자연자본과 생물다양성의 경우, 그동안 통일된 측정방법이나 공시 기준이 많지 않았는데, 2024년에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이하 TNFD)가 공시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TNFD는 자연자본 정보 공시에 관한 국제적 이니셔티브로, 2021년 6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자연기금(WWF) 등 국제기구의 주도로 설립됐다. 지난해 9월 TNFD는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으며, TCFD(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와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전략, 위험 및 영향관리, 지표 및 목표 등 4가지 트랙의 14가지 공시 권장사항을 포함, 자연자본 위험과 기회를 공시하도록 돼있다.

특히 TNFD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WEF) 브리핑에서 기업, 금융기관 등 46개국 320곳에서 향후 2년 내 자연자본 공시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TNFD 채택을 약속한 기업 중 주목할 만한 기업은 बैं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BBC, GSK, 홀심(Holcim), 이케아(IKEA), 케링(Kering), PwC, 소니(Sony), 베올리아(Veolia) 등이 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 노르웨이 은행 투자 관리(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UBS,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 그룹(Japan's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스토어브랜드 자산 관리(Storebrand Asset Management) 등도 포함됐다.

이 기업들은 2023년, 2024년 또는 2025년 회계연도에 걸쳐 TNFD 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연례 기업 보고서에 공시할 예정이다. TNFD는 오는 10월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두 번째 참여기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시작된 자연기반과학기반목표(SBTN)은 기후 중심의 과학기반 목표 이니셔티브(SBTi)를 기반으로, 자연과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레임워크다. SBTN 프레임워크는 보다 엄격한 목표 설정과 검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데, 예를 들어 SBTN에 필요한 데이터 유형에는 조달과 운영지역의 지리적 위치, 물 사용 영향, 특정 지역의 생물다양성 수준 등이 필요하다.

CDP 또한 2023년부터 설문지에 플라스틱 관련 문항을 추가했으며, 기후변화 외에 삼림(Forest)과 물(Water) 또한 공시 영역에 포함시켜 기업들이 이 정보도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CDP에 따르면, 2022년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공개한 기업 수는 1만8700곳인데 생물다양성을 공개한 기업은 그 절반인 8700여 곳으로 확인된다.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 10월 콜롬비아에서 개최,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 제출해야

기업이 자연자본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난 2022년 쿤밍-몬트리올(Kunming-Montreal)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s)’의 핵심 사안으로, 프랑스를 포함해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기 시작했다. 또 EU는 회계연도 2024년부터 500인 이상 대기업에서 CSRD(지속가능성보고지침)에 따라 공시를 하는데, 이 보고기준(ESRS)의 E4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SRS E4 표준에는 육상 및 해양 생태계, 생물종, 생태계 다양성과 관련한 영향과 상호의존성에 대해 공개해야 하는데, 기업은 위험과 기회, 관련 전략, 조직과 재무적 영향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협약이 매년 진전을 거듭하고,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COP16 회의에서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계획(NBSAPs)을 제출해야 하는데, 2023년에는 일본(7월), 유럽연합(11월), 프랑스(12월) 등이 수정 업데이트된 국가 목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열릴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논의도 주목해봐야 한다. 지난해 열린 COP28에서는 기후 적응 정책에 관한 논의로, 식량 체계 변화 및 삼림과 토지이용, 물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중요하게 포함된 바 있다.

MSCI, “2023년 신규 녹색채권 4분의 1이 생물다양성 프로젝트 관련, 지난 5년 동안 3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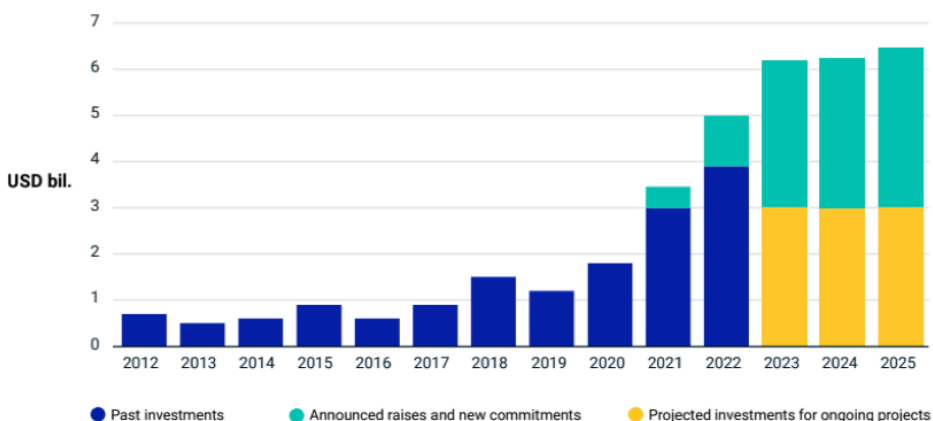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이 글로벌 규제 이슈로 부각되자, 투자자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MSCI 보고서는 “2023년 신규 녹색채권 발행의 4분의 1이 생물다양성, 삼림, 지속가능한 농업 등 자연기반 프로젝트와 관련있었다”며 “이 수치는 지난 5년 동안 3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채무스와프(Debt for Nature Swap, 일명 DNS)가 민간에까지 등장한 것도 새로운 흐름이다. 원래 자연채무스와프는 선진국의 정부나 NGO, 금융기관, 환경단체 등이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떠안는 대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약속받는 것인데, 이는 1980년대부터 있었지만 이전에는 개인투자자 차원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MSCI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전 세계 생물다양성 자금조달 격차가 2030년까지 7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면서 자연채무스와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 개도국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확보 및 채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이런 스와프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중남미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 제도 보호를 목적으로 16억달러(약 2조14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고, 크레디트스위스(CS)가 이 국채를 매입했다. 일명 ‘갈라파고스 채권’이다. 지난해 8월에는 아프리카 가봉이 처음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자연채무스와프를 체결했다. 향후 15년에 걸쳐 가봉이 해양생태계 보호에 1억630만달러(약 2100억원)를 지출하는 조건으로, 가봉이 발행한 5억달러(약 6700억원) 규모의 국채를 BofA가 입해, 블루본드(Blue Bond, 해양보호 채권)로 전환하기로 했다.

Exhibit 15: Nature is becoming a much more investable prospect



Data has been obtained from three main sources: (1) a survey of market participants conducted during April and May 2023, (2) analysis of more than 400 public announcements of capital raises for low-carbon funds and (3) modeled investment for over 7,000 projects, both registered and in the development pipeline. Data as of June 30, 2023. Source: MSCI Carbon Markets (formerly Trove Research)

하지만 이는 리스크도 크다. 가봉의 경우 스와프 교환을 완료한지 불과 2주만에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돼버렸다. 하지만 MSCI는 “다자간개발은행(MDB)이 자연채무 스와프 거래에 대한 리스크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MDB들도 그렇게 움직이거나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주개발은행과 미 국제개발금융공사,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주축이 된 ‘자연·기후를 위한 지속가능성 연계 주권 금융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Sustainability-linked Sovereign Financing for Nature and Climate)’가 출범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경우, 2024년에는 고품질 탄소배출권을 찾는 투자자들의 까다로운 눈높이에 따라 시장이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MSCI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자발적 탄소시장에는 숲, 농지, 해안생태계의 천연 탄소저장을 겨냥한 프로젝트는 850개 이상이 등록되었으며, 또다른 2100개 신규 프로젝트가 개발 및 등록되고 있다. MSCI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자연기반 프로젝트에 160억 달러가 투자됐는데, 현재 개발중인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90억달러, 2030년까지 추가로 200억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고품질 탄소배출권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GSK, 지속가능한 조달 표준 발표하고 S&P는 생물다양성 리스크 평가 서비스 출시

기업과 ESG 생태계에서는 생물다양성 규제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기업인 GSK는 “2025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첫번째 TNFD를 공시하겠다”고 밝히며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GSK는 SBTN의 파일럿 프로젝트에 17개 회사 중 유일한 제약회사로 참가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유당, 젤라틴, 야자유, 종이, 설탕 등 핵심재료에 대한 지속가능한 조달 표준을 개발했다. GSK의 지속가능한 조달표은 토지이용 변화, 수자원 관리, 생물다양성, 동물 복지, 유해물질, 온실가스 배출, 노동권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했다.

S&P글로벌에서는 지난해 8월 금융기관들이 기업 포트폴리오의 자연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자연 및 생물다양성 위험(Nature & Biodiversity Risk)’은 1만700개 이상 기업과 160만개 자산 데이터셋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가 토지 면적, 생태계 파괴 등 생태발자국으로 자사 기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및 의존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툴(tool)이라는 게 S&P글로벌의 설명이다.

TNFD를 비롯한 생물다양성 공시가 확산될수록, 향후 수년 안에 기업의 생물다양성 정보와 대응은 기후 대응에 맞먹을 정도로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 기관의 2024년 ESG 트렌드 전망

<https://www.lw.com/esg-resource-hub/ESG-Insights-10-Things-That-Should-Be-Top-of-Mind-2024>

<https://eco-act.com/climate-action/climate-and-sustainability-trends/>

<https://www.thomsonreuters.com/en-us/posts/esg/esg-predictions-2024/>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 '제로초안(Zero Draft)'

<https://www.surfrider.org/news/zero-draft-of-global-plastics-treaty-released>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채택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98905&menu_dept2=35&menu_dept3=71

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de4f236d-7164-11ed-9887-01aa75ed71a1.0001.02/DOC_1&format=PDF

<https://kba-europe.com/board/kba-daily-hot-line/?uid=24181&mod=document>

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포장재 EPR

<https://www.packagingdive.com/news/epr-extended-producer-responsibility-packaging-california-colorado-oregon/645150/>

EU 배터리 규제

https://environment.ec.europa.eu/news/new-law-more-sustainable-circular-and-safe-batteries-enters-force-2023-08-17_en

TNFD와 SBTN 차이

<https://www.greenbiz.com/article/understanding-new-nature-and-biodiversity-frameworks-companies>

국가생물다양성 목표 제시

<https://www.cbd.int/nbsap/>

다자간개발은행 TF 구성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23>

MSCI, 2024 ESG Trend

<https://www.msci.com/research-and-insights/2024-sustainability-climate-trends-to-watch>